



◆ [Focus]

- (IRA) IRA 시행 세부 규정 마련에 한국, EU, 일본 등 의견 개진

◆ [What's News]

- (중간선거) 미국 118대 중간선거 투표 동향
- (미국-인도) 엘런 美 재무부 장관, 인도 방문 일정 공개
- (반도체) 엔비디아, 저사양 반도체 대체품 마련으로 대중 수출통제 대응
- (무역협정) 미국-대만 공식 무역 회담, 8~9일간 뉴욕서 개최
- (친환경) 선진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비용 부담 요구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1. [IRA] IRA 시행 세부규정 마련에 한국, EU, 일본 등 의견 개진

#### □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 개요

-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의 시행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 실시(10.5~11.4)했으며 한국, EU,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 의견 개진
-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(guidance)을 마련 중으로, 지난 10.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(public comment)을 진행
- ①친환경차 세액공제(notice 46), ②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(notice 47), ③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(notice 48), ④청정발전 세액공제(notice 49), ⑤세액공제 현금화(notice 50), ⑥임금 수습 요건(notice 51)
- 현지 언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시행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고 하며 한국, 일본, EU(유럽연합)가 문서를 통한 공식 의견 내용을 잇달아 보도

○ **친환경차 세액공제(NOTICE 46) 관련 주요 질의 내용**

- △북미산이라는 최종 원산지 정의 및 북미에 포함되는 실질 지역, △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종류와 그 비중 산정 관련 질의, △전기차 부품 조립 기준과 지역, △전기차 배터리 조립을 금지한 해외 우려 대상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등을 요청

**<IRA 청정에너지 차량 보조금 주요 내용>**

- 2023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% 이상 사용하는 경우 3750달러 보조금 지급(2029년 100%로 단계적 상승)
-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%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국가에서 채굴, 가공한 경우 3750달러(2027년 80% 이상 단계적 상승)
- 동시에 핵심 광물을 채굴·가공·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·조립한 주체가 '해외 우려 대상 기관(Foreign Entity of Concern)'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

**<북미 최종 조립 관련 의견요청서 질의>**

- (9) Final Assembly Requirement. Is guidance nee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term “final assembly” in § 30D(d)(5) or the area included in the term “North America” for purposes of § 30D(d)(1)(G)?

□ **(유럽연합) IRA 친환경차 관련 의견서 주요 내용(인사이드트레이드 보도 등)**

- EU는 IRA의 총 9가지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미 재무부에 불만을 표명했으며, 해당 조치가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경한 태도 견지
-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비롯하여 IRA법이 규정한 다수의 세제 혜택이 WTO 협정이 금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
- EU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미국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, 친환경 전환은 교역상대국의 희생이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
- 의견서에서 유럽연합(EU)이 지정한 크레딧 중 5개는 “WTO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히 차별적인 국내 콘텐츠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”며 에너지 세금 공제 및 특정 재생 가능 자원의 전기에 대한 공제를 연장 및 수정하는 조항, 청정 전력 생산 공제, 청정 전력 투자에 대한 조항 등 여러 차별적 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

□ (한국) IRA 의견서 주요 내용 및 대응(산업부 보도자료 등)

-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한·미 FTA,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
- 우리 정부는 자동차·배터리·소재·에너지·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, 통상 전문가·법조계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
-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,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, 주요 내용은 아래 참조

<IRA 하위규정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한국 정부 의견 내용>

①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

- (유예 기간)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
- (최종 조립 요건)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‘최종 조립’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

②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

- (광물 요건) ①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‘FTA 체결국’ 범위를 넓게 해석, ②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제안
- (부품 요건) ①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, ②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

③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‘상업용 친환경차\*’ 범위 확대 요청

- \* IRA 규정에 따르면,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(최종 조립 요건, 배터리 요건, 우려 외국 법인 등) 없이 최대 7,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
-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 제안

[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11.4)]

□ (일본) IRA 의견서 주요 내용(로이터, 인사이드트레이드 등)

- 일본 정부 역시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차별조항이며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해가 된다고 지적
  - 일본 정부는 미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“IRA 내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과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·미국 정부의 공동 정책에 위배된다” 고 적시
  -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범위가 제한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줄어들고, 이는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
  - 아울러 “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”고 언급하며 IRA 세액공제에 관한 우려 표명

□ 현지 반응 및 동향

- 재무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한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(USTR) 대표는 EU 등 동맹국들과 IRA 관련 고충 면담을 진행하면서도, 유럽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세액 공제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언급
  - EU 측은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 요청 중이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EU 집행위원장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IRA 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계획, 아직 그 결과는 비공개 된 상황
  - 한편, EU와 미국이 중국과 기술 주도권 경쟁을 위해 공동 구성한 ‘EU-미국 무역기술위원회(TTC)’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
  - 인사이드 트레이드는 EU는 조만간 개최될 TTC를 통해 미국의 對 중국 기술 주도권 경쟁에 대한 EU의 협조를 협상 카드로 활용, 전기차 보조금 등과 관련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

\* 자료 : 백악관 재무부, 폴리τικο, 인사이드트레이드, 산업부 보도자료 등

## □ [중간선거] 미국 118대 중간선거 투표 동향

□ 미국 118대 중간선거 투표가 11.8일 개시한 가운데, 공화당의 상원 승리 여부에 현지 관심 집중

○ 많은 선거 전문 언론이 하원은 공화당 승리를 전망하는 가운데, 상원은 주요 상원 경합 주(조지아, 애리조나, 네바다, 펜실베이니아) 개표 이후 결과 파악 가능한 것으로 평가

- 사마토 크리스탈볼(SCB)는 공화당의 24석 차이 하원 승리를 전망, 주지사 선거에서도 6개 주 가운데 4개 주 승리를 예상

○ 본격적인 개표는 투표 마감 시간인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1시 이후 시작될 전망으로 현지 시간 10일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 (미 동부시간 기준)

- 다만,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접견지에서 '우편 투표 무효 소송'을 제기해 정식 결과 선언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

\* 무효 소송 진행 주 : 펜실베이니아주, 위스콘신주

\* 자료 : 뉴욕타임스(11.7), AP News(11.7), SCB(11.7)

## □ [미국-인도] 엘런 美 재무부 장관, 인도 방문 일정 공개

○ 미국 재무부는 엘런 재무 장관의 11일 인도 방문 일정과 의제 공개

- 11.12 열릴 G20 재무장관 회의와 G20 정상회의(11.15~16) 참가에 앞서 뉴델리 방문, '미-인도 경제 금융 파트너십' 행사 참가 예정

- 양국 간 긴밀한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△IPEF 논의, △공급망 협력, △프렌드쇼어링 등을 통한 양자 경제 관계 증진 논의 예고

○ 대러 제재 동참, 러 원유 수입 중단 등 민감 이슈 논의는 없을 전망

-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제재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. 하지만, 현재 G7이 논의 중인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인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

\* 자료 : 재무부 보도자료(11.04), 로이터(11.8)

## □ [반도체] 엔비디아, 저사양 반도체 대체품 마련으로 대중 수출통제 대응

-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에 엔비디아는 저사양 반도체 마련을 통해 미국 정부의 최근 대중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움직임
  -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자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, 인공지능(AI)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 등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
  - 이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(Nvidia)는 규제에 따라 기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(GPU)인 A100를 저사양 신규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 A800로 대체하여 대응 움직임
    - \* 중국용 A800는 기존 A100 대비 성능 70% 수준으로 600GB/s 이하
  - ※ 최근 독일 정부 역시 중국 기업의 자회사 실렉스(Silex Microsystems)가 추진해 온 독일 기업 엘모스(Elm's)의 반도체 공장 인수 계획을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음.

\* 자료 : 월스트리트저널(11.8), 파이낸셜타임즈(11.8)

## □ [무역협정] 미국-대만 공식 무역 회담, 8~9일간 뉴욕서 개최

- 미-중 긴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무역과 경제 관계 강화를 목표
  - 본 무역 회담은 양국이 지난 6월에 가동기로 한 '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' 이후 첫 회담으로써 농업, 디지털 무역 및 무역 간소화 등의 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우호적 국가와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
  - 대만은 '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(IPEF)'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양자 협약 방식을 선택하여, 더욱 다양한 무역 및 경제 관련 주제를 다루게 되었음.
  - 양국의 첫 무역 회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경제 무역이라는 명분으로 대만 독립에 관여하여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발표

\* 자료 : 월스트리트저널(11.8)

## □ [친환경] 선진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비용 부담 요구

- 블룸버그, 유엔기후협약(COP27)에서 비용 부담 중요성 강조
  - 블룸버그는 기후변화 대응에 약 114조 7천억 달러의 지출을 예상하며 COP27에서 참가국들이 대응 방안에 대한 지출 부담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
  - 기후 전문가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주요 탄소 배출국과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
  - 특히 국가들이 COP27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미래 기후변화 대응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 세계의 도덕적 책임 공유가 기후변화 대응의 시발점이라고 지적
  - 하지만 한 전문가는 COP27에서 큰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진국들 간 세계적 기후변화 피해와 보상금과 비용 배당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

\* 자료 : 블룸버그(11.7)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Midterm Races to Watch (미국 중간선거 개표 현황)
	<a href="https://www.wsj.com/livecoverage/election-midterms-2022">https://www.wsj.com/livecoverage/election-midterms-2022</a>
The Washington Post	Despite torrent of misinformation, voting unfolds relatively smoothly (미국 중간선거 개표 현황)
	<a href="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politics/2022/11/08/election-live-results-updates-2022/">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politics/2022/11/08/election-live-results-updates-2022/</a>
New York Times	Election Day in a Sharply Divided U.S. (미국 중간선거 개표 현황)
	<a href="https://www.nytimes.com/live/2022/11/08/us/election-midterms">https://www.nytimes.com/live/2022/11/08/us/election-midterms</a>
CNN	Florida warns US Justice Department that federal election monitors are not allowed inside polling places (플로리다주는 연방선거 모니터가 투표소 내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경고)
	<a href="https://www.cnn.com/2022/11/08/politics/florida-justice-department/index.html">https://www.cnn.com/2022/11/08/politics/florida-justice-department/index.html</a>
USA Today	Election 2022 live updates: Watchdog groups report routine problems; stocks rally on GOP expectations (미국 중간선거 개표 현황)
	<a href="https://www.usatoday.com/story/news/politics/elections/2022/11/08/2022-midterm-election-live-updates/8257821001/">https://www.usatoday.com/story/news/politics/elections/2022/11/08/2022-midterm-election-live-updates/8257821001/</a>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통상 일정

11.08(화)	美 중간선거 (Midterm Election)
11.10(목)	美 10월 소비자물가지수 (Customer Price Index)
11.10(목)	美 주간실업수당청구 (Initial Jobless Claims)
11.11(금)	10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심리지수 (UMich. Consumer Sentiment)



## 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### - (자료발간)

미국 22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 따른 경제 전망(US22-42)

미국 바이오 방어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(US22-41)

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(US22-40)

미국 산업안보국(BIS)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9)

코로나 19 이후 미국 제조업 혁신 움직임(US22-38)

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(US22-37)

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

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
### - (인터뷰) 미국 상공회의소 Charles Freeman 선임부회장 인터뷰 업로드 예정(11월 10일)

매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 인터뷰



“한국산 코로나 테스트 키트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!”

민주당 텃밭 메릴랜드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 주지사는 바로 나!

**래리 호건 주지사 이야기**

한국산 Covid-19 테스트 키트, 한-미 바이오 협력, 대선 계획은?



U.S. Chamber of Commerce

미-중 글로벌 패권 분쟁

미국의 프렌드쇼어링, 그리고 보호무역주의.

**찰스 프리먼 선임 부회장이 들려주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-중 분쟁**

